

승자가 되려고만 하는 소송 선호 문화 대신 공존의 조정 문화가 필요

박준서(전 서울법원조정센터장)

- 제15회 고등고시 합격
- 대구지법 판사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 청주지법원장
- 대법원 대법관
- 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
- 서울법원조정센터장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시간 50년, 법원조정센터의 틀을 만들고 명예롭게 은퇴한 초대 서울법원조정센터장 박준서 전 대법관을 만났다.

●● 대법관 퇴임 후 서울법원조정센터장을 맡아달라는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셨는데, 센터장직을 수락하신 특별한 배경이 있으셨는지요.

당시는 소송 당사자가 수소법원(처음 소송제기를 받은 법원)의 조정회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판사들이 불리한 재판을 할 듯이 위압적인 언동을 한다고 변호사회에서 법원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때입니다.

그런 시기에 법원행정처 박병대 기획실장(현재 대법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박 실장은 가급적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른 조정회부를 지양하고, 퇴직한 경력 법조인들에게 조정판사 역할을 맡긴다면 법원의 숙제인 전관예우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조정판사의 권한을 가진 상임조정위원제도를 입법하여 서울과 부산에 조정센터를 설치할 것이라며 서울법원조정센터를 맡아달라고 했지요.

저는 수소법원 조정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 조정센터의 신설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사법부 불신의 원인이 되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즉석에서 센터장직을 수락한 것입니다.

●● 초대 센터장으로서 재임 기간 중 조정센터의 틀을 만들고 조정성공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셨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기 중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셨는지요.

조정센터 초기에 조정신청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했으나 성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제소사건을 먼저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이 안 되는 경우 재판을 하는 사실상의 조정 전치절차를 운영하자고 법률신문에 기고하며 제안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준영 조정담당 부장판사 주도로 재판개시 전 '조기조정'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조정센터로의 조정회부 사건이 대폭 증가됨으로써 조정센터의 역할이 정착되었습니다. 초기에 월 80건 정도이던 조정회부 사건이 4년 후 퇴임할 시점엔 월 1,000건을 상회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떼법(편집자 주 :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주장)이 통용되지 않고 상식선의 객관적 기준이 적용되어 조정도 공정한 분쟁해결수단이 되도록 유념하며 운영했습니다.

조정이 재판보다 시간, 비용, 집행, 평판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고, 선진국에선 이미 재판 대신 조정, 화해, 중재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대세라는 점을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대체로 30~40%의 성공률이 유지되었습니다.

● ● 미국, 일본에 비해 한국은 소송 이전에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적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조정, 화해보다 승패를 가리는 소송을 선호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문화적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명분을 중시하던 오래된 성리학 문화와 최근 단기 고도성장으로 인한 경쟁 문화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공존은 고려하지 않고 명분을 찾아 상대방을 제압하여 승자가 되려고만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조정이 활성화되려면 민사소송에서도 소제기 전 조정전치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문화에서는 분쟁 당사자 스스로 조정을 선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신청 시 인지대가 소제기 인지대의 1/5 수준에 불과하고 절차의 진행이 훨씬 빠르면서도 조정신청을 외면하고 소제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으로 조정 전치절차를 도입하면 많은 사건이 조정단계에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 ● 위원회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조정인이나 실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분쟁해결에 있어 조정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조정인도 법관처럼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조정인은 중립적인 자세에서 쌍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적당한 질문을 통해 양 당사자가 자기의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승패를 가려 이긴 자가 모두를 차지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조정이 보다 윤리적이고,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절약됨을 조정인이 인식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분쟁에서 나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해결방안이 있음을 이해시키는 유연성의 덕목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엄격한 공정성과 상선약수(上善若水)(편집자 주: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즉,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으며 항상 낮은 데로 임하는 물의 덕을 일컫는 말)의 유연성의 조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 ● 조정센터에서 처리한 조정사건 중 조정 특유의 유연성이 발휘된 사안이 있는지요. 또한 특히 기억에 남거나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 있는지요.

자형이 처남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아 동생이 누이와 자형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자형에겐 승소하고, 차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누이에게는 패소하여 누이를 상대로 항소한 사건이 서울법원조정센터로 접수되었습니다. 자형은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이 없고 누이 명의로만 재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생이 자형이기 때문에 거래를 한 것이니 함께 빚을 갚는 것이 도리라고 누이를 설득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남매가 차용금 연대채무를 이유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간단한 이유를 붙여 누이도 연대하여 빚을 갚도록 직권결정했더니 당사자가 수락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조정의 유연성과 장점이 발휘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이 사건 외에도 부모형제간의 분쟁에서 혈륵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사례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 ● 오랜 기간 판사 및 변호사, 조정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각 직책에서 분쟁을 대하는 관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요.

조정위원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금전만능주의로 돈에 너무 오염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차이 없이 돈이 수단인 아닌 목적이 되어 돈에 종속되어 있는 딱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판사, 변호사로서는 법에 의한 분쟁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나, 조정위원으로서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우리 사회의 뒤바뀐 가치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의 지배 이전에 올바른 교육과 문화운동을 통한 건전한 가치관 확립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세계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 ● 위원회는 올해 서울대, 이화여대 로스쿨과 조정중재 실무 교육 제공 및 학술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조정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과거 법조인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공방을 벌이거나 시비를 가리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에서 변호사는 승소판결을 얻는 것에만 몰입하고 판사는 승패를 가리는 것에만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 오랜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판결을 집행하지 못해 가산탄 탕진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장래의 법조인은 당사자의 분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쟁해결사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로스쿨 교육과정도 종전의 공방전이나 시비 가리기의 학습에서 탈피하여 쌍방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충족시키는 분쟁해결의 학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대학 로스쿨의 MOU 체결은 산학 연대처럼 좋은 모습의 발전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 ● 법조계의 대선배로서 꾸준히 이슈화되고 있는 ‘전관예우’ 문제에 관한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관들은 개업 초기 많은 사건을 의뢰받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만 선별 수임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성공률 통계가 전관예우의 증거로 치부되어 전관예우의 인식이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일부 전관들이 변호사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전관예우의 오해를 가중시킵니다. 이 부분은 전관들이 크게 유념해야 할 대목입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전관들이 전관예우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신함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전관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정년까지 법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 후에는 전관예우의 논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공증 등의 업무영역을 제공하는 사법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장 중인 조정센터의 조정도 당초 기획대로 전관들의 업무분야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년 후에 현재와 같은 조정센터의 상근제도는 업무 부담이 너무 크므로 비상근 근무도 가능하도록 현행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각 분야의 전관들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활동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 50년 넘게 법조인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 온 소회와 후배 법조인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법조인이 되어 평생 과분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조생활을 소신대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법관으로서 33년간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저의 과오로 고통을 당한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두려움과 미안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지성무식(至誠無息)(편집자 주 : 끊임없고 지극한 정성, 즉, 씬 없이 정성을 다하자)이 명언임을 실감합니다. 법조생활의 소회는 결국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입니다.

어느 사회건 젊은이들이 존경하는 건전한 지성인 집단이 있어야 그 사회의 건전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금전만능주의로 인해 천민자본주의 형국을 띠고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는 돈을 지배하는 상류집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돈이 먹이사슬의 정상에 있는 형국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선비라는 지식인 집단이 지(知), 인(仁), 용(勇)의 덕목을 갖추고, ‘군자는 의(義)에 밝고 이(利)에 밝은 자는 소인(小人)’이라는 올바른 자세로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법조인들이 돈에 종속되지 않고 지, 인, 용의 품격을 지키며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멋있는 지성인 집단이 되어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진행 | 손정배 (홍보팀장) • 정리 | 박진규 (홍보팀) • 사진제공 | 뉴스토마토

위원동정

COMMISSIONERS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김정탁 위원(서울제6중재부, 한국언론학회 회장)은 5월 9일과 10일 양일간 전남 여수 디오션 호텔&리조트에서 ‘소통(疏通): 매체를 넘어 인간으로’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은 2012년 10월 한국언론학회 제39대 학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는 5백여 명의 언론학자와 전현직 언론인 그리고 대학원생 등이 참석하여 모두 1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제7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기자간담회 개최



장익현 위원(대구중재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이사장)은 5월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이하 딤프)’의 기자간담회를 개최

했다. 장 위원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제7회 딤프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됐으며, 딤프는 6월 15일(토)부터 7월 8일(월)까지 대구시내 주요 공연장 및 대구 전역에서 진행된다.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토크콘서트 강연



홍숙영 위원(경기중재부,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은 5월 14일 여성리더를 양성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강연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열린 ‘여우비@홍대’ 토크콘서트 강연

에서 ‘진정성이 담긴 나만의 스토리가 곧 스펙이 된다’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개인적인 경험을 함께 나누며 강연을 진행했으며, 성공비결은 ‘하고 싶다’가 아닌 ‘하는 중이다’에 있다고 강조했다.